

제주도 구비문학의 전승 변이적 특성*

좌 혜 경**

요 약

기존에 수집된 구비문학 자료에는 제주사람들의 언어로 표현된 세계관과 인식이 잘 반영되고 있는데, 특히 구비문학의 전승변이를 살펴보면 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시적 변이와 함께 역사를 반영하며 공시성에 따른 장르의 내부적 변이, 개별 화자에 의한 변이, 목적성을 띤 의도적인 변이도 나타난다.

우선 지역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동 유형 전설의 전도적인 분포와 함께 동 유형의 풍수 전설 등이 구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근 지역의 소재를 차용하기도 하며, '삼별초'전설이나 해녀항일에 대한 사실담도 구전되고 있다. 설문대 이야기가 신화·전설·민담 형식으로 구전되었다는 것은 민중들에게 선호도가 높고 향유층의 광포성을 뜻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장르 내부에서 일어난 변이 현상 추정이 가능하고 또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당신화간에서는 지역적인 연계가 뚜렷이 나타난다. 또한 구

* 본고는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기념으로 개최되었던 “제주어와 제주민속의 변화, 그리고 보존”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했던 글을 보완한 것임.

** 해녀박물관

연능력이 뛰어난 화자에 의한 변이는 언어와 문학성을 풍부케 하며 그 흥미를 더하는 편인데 목적성을 띤 의도적인 개작은 현장감과 언어에 내포된 연상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주요 색인어: 구비문학, 전승변이, 신화, 풍수전설, 화자

I. 서 언

제주도 구비문학의 주된 장르는 서정적 장르인 민요, 신화, 전설, 민담 등의 설화와 무속의례에서 창으로 불려지는 무가, 교훈담이나 생업담 등 속담 등을 들 수 있다. 모든 구비 장르는 전승되면서 변이를 겪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이다. 이른바 유동문학, 표박문학이라는 개념은 변이적 특성으로 명칭지어지기도 했다. 곧 전승변이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그 지역적 특성 및 구비문학 향유층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전승변이는 공동작이라는 개념과 적층(積層)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전승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 및 화자와 같은 여러 요소에 의한 변이를 뜻한다. 동일한 소재가 장르내부에서 변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 지역적 소재를 차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는 상대적 관점이나 화자가 특히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알고 있는 설화들은 그가 속한 문화적 집단에 관한 것과 그가 살고 있는 공간에 관한 것들이 많다.¹⁾

특히 제주도 전설의 특징으로 제주 땅의 생성을 설명하는 ‘설문대할망 신화’와 ‘고종달형 전설’은 불모의 땅으로서의 제주와 제주인의 삶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또한 역사 인물전설은 권력적인 욕구를 당대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해서 적절하게 형상화시킨다. 반면 ‘이형상 목사와 광정당 전설’ ‘김녕뽕굴 전설’등에서 처럼 토속신앙과 조선조 이데올로기와의 갈등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분명하게 형상화하기도 한다.²⁾

이 글은 구비전승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이양상을 고찰하여 지역적·시대적·역사적·개인적 변이양상 요인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추적하여 살피고자 한다.

1) 이수자(1998), 『설화 화자 연구』, 박이정, 33쪽.

2) 제주도(1995), 『제주의 민속 III』, 제주도청.

II. 지역적 특성에 따른 변이

가. 동 유형 전설의 전도적 분포

유명한 지관 '소목사'에 관한 풍수전설과 중국의 풍수사인 '호종단(고종달)' 그리고 날개 잘린 아기장수 전설 등은 전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종달인 경우는 물과 연관된 여러 곳에서 산재되어 구전되고 있다. 제주는 왕후지(王侯之地)의 땅이어서 중국의 진시황은 풍수사를 보내 수혈과 지혈을 끊어 인물과 자연을 황폐화시켰다. 전설의 내용속에는 수혈 끊기에 실패한 곳들이 더러 있는 데, 이러한 곳은 '행기물'이라는 명칭이 붙어서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테면 서귀포의 홍리, 안덕면 광평리 창고천에 있는 '행기소', 혹은 천미천이나 화북천의 '행기물'의 전설과 같은 유형이다. 이러한 전설의 내용은 유사 유형들이며 대부분 자연지형에 대한 해석 들이다. 척박한 불모의 땅을 제주민들은 '고종달의 지맥 끊기' 모티프를 차용하여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전설의 경계를 살펴보면 대개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고종달은 지리서(地理書)를 따라서 동쪽으로부터 지맥을 끊고 난 후 서귀포 홍로에 다다랐다. 지리서의 '꼬부랑 나무아래 행기물'이라고 쓰여 있는 지리서의 물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을 때 백발노인이 혈레벌떡 달려와서, “이 물 그릇을 소길마 밑에 놔 주십시오.” 하고 너무 다급하게 애원했다. 이윽고 고종달이가 와서 물을 찾았다. “여기에 오래 살았어도 그런 곳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요”하고 농부가 말하자 고종달은 농부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는 물혈(水脈)을 지키는 수신이였다. 결국 서귀포 홍리 지장새미 물혈은 맥을 끊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 것이다. 곧 '꼬부랑나무 아래 행기물'은 소길마(쇠질매) 밑에 숨겨져 있는 행기그릇의 물이란 뜻으로 농부가 숨긴

물그릇을 가리킨다. 가난과 굶주림의 삶을 자연환경의 파괴로 돌리고 있으며 행위에 대한 고발과 회귀 혹은 극복, 낙원으로의 복귀를 주제로 한 형태의 전설로 볼 수 있다.

나. 인근 소재에 의한 변이

제주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설화는 다시 지역적 소재와 연결되면서 한 지역의 역사와 사회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인근소재에 따른 변이는 역사전설이나 인물전설에서 주로 찾을 수 있다.

날개 달린 아기장수 유형, 그리고 신당을 철폐한 이형상, 이좌수 등 전형성이 강한 인물들을 이용하여 인근 지역의 소재와 연계시키면서 전승되고 있다. 한편 민담 자료 중 <산방산의 금장지>는 역시 산방산 전설의 차원보다는 금장지와 기우제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외에도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유형의 일종인 <사람 잡아 먹는 오랑이>는 같은 호랑이류를 다루면서도 동화적이고 재미있는 민담형을 구연하고 있다.

Ⅲ. 사회적 특성에 따른 변이

가.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적 시각

인물전설 속에서는 그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택하느냐 부정적인 입장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 집단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³⁾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인물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시각의 차가 다

3) 조동일 (1980),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9쪽.

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좌수와 이형상과 같은 유교적인 이데올로기의 인물에 대한 긍정과 부정은 인격과 지혜를 칭송하거나 유교 제례의식의 엄숙함을 깨우치도록 하는데 목적성을 띠고 구성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무속의 당인 '광정당' 전설에서는 이형상의 신당철파와 함께 유교이데올로기 강화에 저항하는 기존의 관습과 전통사상에 대한 반항의식이 내포되어 있기도 한데, 기존의 전통종교인 무속사상에 바탕에 둔 지역민들의 저항의지와 힘이 표출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민중들은 유교적이고 현학적인 유학자들의 위선과 거짓을 고발하기도 한다. 위선의 탈을 벗은 진정한 관리들을 원하면서 명분과 논리를 내세운 선비정신에 과감히 도전하여 새로운 인간상을 창조하기도 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물 전설의 예를 보면 이렇다. 조선조 말 서귀포시 하효동에 현유학이 있었다. 어렸을 적부터 기지와 재치가 비상한 그가 일곱 살 적에 한 노인이 나이를 묻자 '곱'이라고 대답했다. 곧 일곱을 간단히 말한 것이다. 이에 나이든 노인이 화가 나서 '버릇없는 놈'이라고 치부해 버렸다. 현유학은 "허를 한 번 구부리는 데, 힘이 안듭니까" 하자 노인은 더 기가 막혀 말을 더 이상 잊지 못했다.

당시 양반들은 천한 사람과는 친하지 않았으나 현유학은 기생에게 절을 하여 술을 얻어먹고 누님이라고까지 해서 큰 술상을 받아 얻어먹은 일화를 전한다. 그러나 동네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자 "나는 기생에게 절한 바가 없소. 술향아리에 절한 것이오."라고 했다. 그는 점잖은 양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호탕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해대었던 것이다.

대정읍의 김생원이 이 사실을 듣고 그의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우쭐대었다. 그러나 그는 김생원을 체포하여 문초하기에 이른다. "제주목에서 통문이 왔다. 제주에 왜선이 침범하여 왜놈들이 두서너 명 올라왔는데 잡아서 문초하라. 왜놈들은 사타구니에 큰 사마귀가 있다고 하는 데 검사를 해서 풀어주도록 해라" 현유학을 골탕먹여주겠노라고 큰소리 치던 김생원은 보여서는 안 될 곳마저 관리들 앞에서 공개해야만 했던 것이다. 양반들의 위선에 혐오를 느낀 제주도민들은 체치와 기지가 넘치는 훈장의 모습을

상상하고 재창조한 것이다. 그런데 비록 재치있는 현훈장도 이완용에게는
영락없이 당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는 양반을 상징하는 두루마기, 경남 통영의 갓모자, 합죽선, 전주 부
채와 은장도까지 치장하여 허식에 치우친 나머지 곧 자신의 위선이 탄로
나기에 이른 것이다. 그 차림새를 본 이완용이 “당신은 과히 선비가 못되
오. 작은 고을의 훈장인 주제에 그렇게 치장을 해서 다닐 수가 있겠소. 흠
치거나 얻어 입었겠죠.”

제주사람들은 유교적 위선의 탈을 둘러쓰지 않은 진정한 관리들의 본연
의 모습을 찾긴 했지만 결국은 다시 명분과 논리에 묶인 한 인간의 전형
을 본 셈이다.

나. 제주민의 한계성 인정

야기장수를 비롯한 힘이 세거나 날개달린 장사들의 이야기는 제주 전역
에서 못 서민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곤 했다. 제주민의 삶의 한계나 역
사속의 고난 등을 날개 잘린 ‘오찰방’이나 혹은 먹지 못해 힘을 쓰지 못하
는 거인 ‘막산이’와 같은 장수들의 이야기를 통해 종종 표출하곤 한다. 왕
후지지의 땅에서 거대한 힘인 왕권에 저항할 수 있는 영웅들이 등장 할
수 있다는 이상향은 바로 중국의 풍수사인 호종단에 의해서 그 근본적인
힘이 소멸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을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곤 했다.

‘막산이’는 제주의 대표적 거인이며 먹을 것이 없어 쫓겨난 어느 종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가 지닌 힘의 성격은 도적질을 하여 부정적인 방
향으로 쓰면서 어느 기간에만 지니고 있다가 무의미하게 결국은 소멸되어
버렸다. 이는 곧 제주장수들의 배고픔과 힘의 한계이자 곧 제주민의 한계
를 뜻한다.

‘오찰방’은 장수를 상징하는 날개가 잘린 이후에도 중앙에 가서 도둑을

잡아 공을 세웠다. 그러나 단지 말을 타고 궁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보지도 못한 채 찰방 벼슬을 얻는 데 불과했다. 이는 섬사람으로서의 한계표출로서 장수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섬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한계를 합리화시켰던 것이다.

장사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비극적 결론으로 끝을 맺는데, 이러한 비극적 삶은 결국 섬사람들의 삶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당대를 살아갈 수 없던 아기장수, 혹은 장사들의 삶을 통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려고 한 것이다. 또 한 예는 강정리 김씨댁 아기장수의 이야기다. 부친의 묘소가 '장군대좌형'이지만 묘를 이장하려고 산을 파 막 헤집으려고 할 즈음, 황새가 뒷발을 일으키고 날개를 펴서 폭 고꾸라져서 죽고 말았다. 시신을 이장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은 이미 죽어있었다.

이외에도 날개가 잘리고 장수는 되지 못했으나 장사로서 한평생을 살았던 양태수나 오늬힘내기 전설인 홍리의 고대각, 시흥리 부대각, 그리고 영웅적 장사인 중문 대포리 강씨, 호근리 허옥, 허결 등은 표상적이면서도 지역민의 지향적인 인물들이었다.

다. 풍수 전설의 유행

풍수전설은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특히 남성들에 의해 즐겨 향유되곤 했다. 한때 조상이 죽으면 좋은 음택지를 골라 장사지냄으로써 자손발복, 조상발복을 기원하는 음택풍수에 대한 전설들이 많이 회자되고 향유자들이 욕망을 자극하기도 한다. 또 자연 지형에 대한 기형(奇形)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풍수관념을 이용해 이야기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지관이었던 '소목사' 관련 유명한 풍수전설들은 지형에 관한 해석과 함께 욕망(慾望)의 징계(懲戒)와 수분(守分)을 교훈으로 하는 내용들이 많

이 포함되어 있다. 소목사는 지참서(地讖書)에 표시된 산인 '군물동산'을 보고 길지라고 감탄했다. 통인 부친이 돌아가서 산터를 부탁드리자 명당을 가리키며 금기를 지키도록 했다. 터 밑에 있는 돌을 치우지 말고 장사를 지내라고 한 것이다. 곁에서 이 말을 듣던 사위는 명당자리가 탐나서 틈새를 이용해서 돌을 들어낸 후 파혈을 시켜버렸다.

한편 소목사가 산 자리를 보고 감투자리 몇 개 날 것인데 하며 푸념을 하자, 그것을 듣고 있던 김씨 집안의 사람은 거기에 산을 쓴 후 완전히 패가망신해 버리고 말았다.

소목사가 가르쳐 준 음택자리가 금기를 지키지 못하고 파혈이 되어 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욕망의 경계를 깨닫지 못해서 덕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장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지관이 알아본 땅인 발복 자리에 그 후손이 복을 받았다는 전설은 풍수지리적, 지상론적 사고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Ⅳ.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 반영

가. 제주민의 역사인식 반영

전설적인 내용이 역사적인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장소나 지형지물, 역사상의 인물이거나 역사적 사건을 다루었을 때, 이는 역사전설에 포함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진실이 어느 일정시기가 지나면 전설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역사전설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누적되어 온 것일 뿐 만 아니라 역사적 진실 또한 가지고 있다.⁴⁾ 삼별초의 주역 김방경과 김통정과 같은 인물은 신화와 전설에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제주민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4) 조동일, 앞의 책, 436-437 쪽.

항파두리의 삼별초 항쟁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지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제주민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다. 항파두리와 가까운 인근지역인 애월읍 고내리 본향당 신화나 김통정 전설에는 삼별초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항파두리를 중심으로 치러진 삼별초 항쟁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삼별초에 대한 구비전승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역시 김통정이다.

그러나 두 장르상에서 나타나는 인물과 역사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결국 본향당 신화에서는 싸움에 이긴 여몽 연합군의 삼장수(홍다구, 김방경, 혼도)가 당신으로 좌정하고 영웅으로 표출되는 데 반해서 전설에서는 김통정만이 영웅화되어 나타난다.

같은 역사적 사건에서도 구연자들의 인식이 이처럼 상반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곧 신앙민 혹은 구연자들의 역사 인식에서 달라질 수도 있으며 장르의 특징과도 연계시켜 살필 수 있다.

전설에서 지역민을 대표하는 아기업개의 등장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결국 여·몽연합군을 도울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생존 전략이다. 김방경이 장수들을 지휘하여 내성으로 들어가자 아녀자들이 호곡하여 김방경이 안심시켰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삼장수가 토지관이 되었다는 것은 여몽 연합군의 승리에 대한 인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신화의 주인공은 고난을 극복하고 영웅이 되거나 싸움에 승리한 자들이다. 곧 토지관은 자신들을 돌봐주기 위해 파견된 관리들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신화의 모티프 중 용감한 지역민을 대표하는 ‘세척하르방’이 토지관의 잘못을 꾸짖었다는 것은 제주도민들의 중앙에 대한 비판 인식의 반영이다. 이러한 비판인식은 전설에서 김통정을 선호하고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염원을 달성해 줄 인물로 기대한 것과도 상통한다.

지방의 토속 세력으로 볼 수 있는 세척하르방은 바로 토지관 위에서 제를 받게 된다. 비록 승리자를 당신화의 주인으로 만들더라도 외세의 세력

과는 긴밀하게 결합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주인임을 인식하는 제주민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김통정에 대한 역사 전설은 역사 속에 나타난 인물을 선택하여 향유자들이 인식을 덧붙여 탄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구연자들은 김통정을 지혜를 갖춘 장수로서 신비한 도술과 외모적 특성을 지닌 영웅과 같은 존재로 그려내어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역사 속의 주인공을 선택하면서도 향과두리 인근의 자연 지형을 김통정과 연결시키면서 서술해 나간 것도 한 예이다. 곧 구연자들은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는데 있어서 김통정이라는 인물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설득력이 있는 장소로서 증거물인 ‘흙붉은 오름’, ‘장수물’을 선택했다.

전설 전반에 나타난 김통정은 지역민들에게 회자 될 때에는 상당히 영웅적이고 바라보는 관점 역시 긍정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곧 지역민들은 관군에 협조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삼별초를 도왔을 법하다. 이 당시 전사한 김수의 묘(墓)에는 “토착민이 관군에 협조하지 않고 적을 도왔기때문에 패배했노라.”라고 적혀 있다. 이런 사실이야말로 제주사람들이 삼별초를 더 선호했다는 것을 증명한다.⁵⁾

그러나 도민들은 김통정의 영웅성을 강조했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곧 여몽 연합군과의 대결이라는 세계우위에 입각하여 김통정은 좌절을 겪고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향유 집단은 김통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관에 의한 억압에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곧 자신들의 관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켜줄 영웅을 기대했으나 결국은 역사적 사실에 의거해서 패배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목호의 난과 최영장군에 대한 일화가 일정 지역과 연계되어 전설화 혹은 유래담으로 전승되는 예도 있다.

서귀포시 법환리 ‘막숙’에 대한 지명유래담을 보면 공민왕은 최영에게 군사를 주어서 토벌하게 하였다 (공민왕 23년1374년). 최영은 법환리 포구에 막을 치고서 군사를 독려하며 목호의 잔당을 섬멸시켰다.

범섬 남쪽 ‘큰항문이도’는 해식동굴로 30척의 배를 숨겨둘 만한 곳인데

5) 이영권(2005),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81쪽.

동굴 벽 위에는 꽃처럼 아름다운 암석들이 박혀있고 원나라의 목자들이 여기 와서 숨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막동산'은 고려말 1374년 목호의 난을 진압하러 온 최영 장군의 군사가 짐승가죽으로 막을 치고 머물렀다고 해서 유래되었다.

목호의 난 당시 범섬을 점거한 목호의 잔당을 최영장군이 공격하기 위하여 고려 군사들을 조밀하게 숨겨두었다고 해서 '뽕뽕이동산'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오달이'는 목호의 난 당시 물에서 최영 장군이 이끄는 군사에게 밀려 범섬으로 도망친 목호 두목과 잔병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오달이라는 장군이 일명 '큰태왓', '군사왓'이라고 하는 곳에서 군사들을 훈련시켰던 곳이다.

나. 근대기 해녀 항일 역사 사실담 생성

해녀 항일운동의 역사적인 거점이었던 구좌읍 하도 · 세화 · 우도 등에서는 해녀 항일담이 종종 구전되고 있으며, 특히 실제 사실담에 대한 관심으로 기존에 전승되던 설화는 거의 구전되고 있지 않다. 근대기의 역사적 사실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기존의 전통으로 구전되던 구전문학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담은 해녀운동의 과정과 역사적 전개, 해녀 항일운동의 경과 및 당시의 상황, 장소와 인물 등이 자세하게 증언되고 있는데 항일에 대한 증언은 거의 비슷한 경험과 동일한 모티프의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녀 항일 투쟁은 해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일제의 경제 수탈에 맞서서 해녀들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투쟁임과 동시에 일제의 수탈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항일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에 구전으로 전해지는 해녀항일 관련 사실담의 주된 모티프들이 역사전설화 될 가능성은 높다.

젊고 똑똑하게 보이는 주동자인 사람들의 흰 저고리에 붉은 잉크와 물

린 사람들에게 잉크 물을 뿌려서 표지한 후 족족 검속하여 차에 태우는가 하면, 해녀들과 경찰관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경찰관 모자를 벗겨 버리는 용감한 해녀들도 있었다. 해녀들은 아주 강한 의지로 일본 경찰에 항거하였다.

일인(一人) 경찰들은 가혹하게 억압해서 체포된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여성들에게도 혹독한 매질로 관련자(지도자) 색출에 혈안이 되었다. 소위 '쇠쫓매'란 말이 생기다시피 했다. 잡혀간 해녀들 중에는 분만해서 10일도 채 못되어 체포되고 40여일 만에 풀려나와 보니 애기는 죽고 말았다는 비운의 이야기도 전한다.

다행하게도 또 한 해녀는 애기를 분만해서 7일 밖에 안 된 때에 구금되어서 그 시누이가 애기를 업고 다니면서 젖을 먹여 살렸다. 해녀들이 항일운동 때 주로 불렀던 '해녀가'는 옥중에서 강관순에 의해 면회 온 사람에게 넘겨져 불려졌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해녀고초와 투쟁을 이야기하는 중에 무단정치와 경찰행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예를 잘 살필 수 있다.

V. 장르상의 변이

가. 신화·전설·민담의 장르 공유

“산문 서사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먼저 신화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설 민담시대가 있었으며 그 뒤를 이어서 작가의 작품인 소설시대가 있다”⁶⁾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아울러 서사문학의 공유시대가 있었다. 이러한 신화 전설 민담과의 장르상의 변이를 명확히 살필 수 있는 예가 ‘설문대할망’ 관련자료다.

6) 조동일(1977),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37쪽.

장한철(張漢喆)의 『표해록』에는 “백록선자(白鹿仙子)와 선마고(洗麻姑) 신에게 절하며 축원했다.”(영조 46년)는 귀절이 나오는데, 이는 도교적 신선 사상과 더불어 여신성을 가진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의 산신으로 좌정했음을 의미한다.

거인여신으로서의 설문대는 인물의 창조행위와 관련해 치마에 흙을 담아서 산봉우리를 만든다거나 배설한 대소변으로 산천을 만드는 행동을 희화화하는 모티프는 마고할미의 전설과 매우 닮아 있다. 원초적인 신격으로 세계창조행위와 자연물의 내부를 질서화한 두 여신은 대모신(the great mother)으로서 두 존재의 관련성을 암시한다.

신라에서는 국행제 등이 영산(靈山)에서 치러진 산신제에서 시작되고 있다. 신라의 산천제에서 산신은 민간에서는 호랑이를 신봉하는 호(虎)산신이나 국행제에서는 남성신과 여성신으로 등장한다. 설문대 할망은 강원도의 마고할미, 북한산 노적봉의 미륵할미처럼 창조형 여신이며 여산신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신앙의식은 영실 오백나한의 불교와 성모여산신의 도교적 성격과 관련되면서 호국 성모신 성격도 다분히 첨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삼국유사』 감통 제7에 나오는 선도산 성모는 중국의 제실지녀(帝室之女)가 남편 없이 잉태하여 사람에게 의심을 받자 배를 타고 진한(辰韓)에 와서 해동의 신라시조(新羅始祖)인 혁거세를 낳은 여산신이다. 신라 남해왕(南解王)의 비, 운제(雲帝)부인인 운제성모(雲梯聖母) 혹은 가야산성모(伽倻山 聖母), 지리산(智異山), 치술령(鎭述嶺) 신모와 같은 존재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신라 초기의 여산신의 출현은 “원시사회에 있어서 강한 모권(母權)과 원시 종교에서 여무(女巫)가 주체자였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⁷⁾

곧 선도산 성모신화는 혁거세 신화보다 앞선 것이므로 신적 속성은 고대국가 성립 이전의 신관념으로 표상가능한데 그 역할은 지모신(地母神), 생산신(生産神)적 역할⁸⁾을 담당했다. 성모의 오줌줄기가 힘이 세고 양이

7) 손진태, 「朝鮮 古代의 山神의 性에 就하여」, 『조선민족문화의 연구』, 275쪽..

많았다는 것은 생식력과 다산성을 의미하며, 이는 성모신·서구암의 마고 할미·설문대가 유사한 성격을 보여준다.

이러한 신격들은 세계창조의 대모신으로 건국신화에는 편입되지 못한 채 국가적인 체제가 형성되기 전부터 존재해 온 고유한 창조행위를 담당 한 생산신으로 숭앙된 원초적인 신격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⁹⁾

신화는 구체적인 증거물과 연결되어 전설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문대 신화와 ‘오백나한’과의 관련성은 장르상의 변이를 일으켜 전설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려가 불교를 숭상해서 국가 종교로 삼고, 태조 개국 원년 천신(天神)과 산신(山神), 용신(龍神)을 합해서 재를 올리는 팔관회를 국행제로 시작했다. 불신과 산천의 음조(陰助)로 고려를 개국할 수 있었다고 믿었고 호국불교 및 산천 숭배의 신앙은 고려시대에 계속되었는데¹⁰⁾, 이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오백나한에 대한 전설이다. 이 전설은 설문대의 신화적 속성을 감추고 상징물과 연결되는 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 이야기다.

이 설문대 할망신화는 할망의 아들들을 영실기암인 오백나한과 연계시키면서 창조적 여신의 성격은 사라지고 전설화된다. 한편 설문대 할망을 희화한 민담에서도 신화에서 나타난 신성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신화가 전설이나 민담으로 구전되는 과정에서 장르적 전이가 일어나 신성성은 사라지고 속세화되거나 희화(戲化)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대국가 이전의 원초의 관념적 성격을 띤 산신은 다시 단군신화(檀君神話)에서처럼 남성성을 띤 남산신(男山神)이 된 것처럼 성(性)이 바뀌게 된다.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남성신이 등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신라 강성시대 이후부터 고려 통일 시대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지

8) 강진옥(1993), 「마고할미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9) 강진옥, 윗글, 36쪽.

10) 金榮振(1985), 『韓國自然信仰研究』,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73쪽.

배계급 또는 지식계급 사이에 중국 전래의 부권(父權)본위의 사상에 의하여 혹은 필연적인 사회사상에 의하여 점차로 산신이 남성으로 화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¹¹⁾ 이처럼 설문대 신화는 고려시기를 거치면서 바로 남성신인 ‘벼름웃도’와 같은男神(남신)으로 대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화산화토의 척박한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바다로 둘러싸인 좁은 땅 곧 ‘모자람’의 자연적·지리적 조건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문대 할망인 거녀의 창조신화를 탄생시키기도 하고, 그들은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한라산신을 만들고 각 마을마다 가지를 뺏으면서 전도적으로 분포시켰다. 신들은 외부의 여신을 만나서 살아가기도 하고 현실에 적응 혹은 투쟁하기도 하는데 신들이 공존하는 모습은 바로 제주인의 삶의 모습 그대로이다.

제주민들은 제주도의 형세를 설문대 할망이라는 거녀를 설정하여 그녀의 행동과 신체에 따라 자연지형을 해설하고 전설화한다. 성산읍에서는 신성성을 지닌 할망의 모습보다 민담으로 구전되며 희화화되어 나타나는데 설문대할망 이야기에 내포된 잠재력이 제주민들에게는 더욱 삶의 활력소가 되었을 것이다. 불모지의 땅에 대한 합리화를 웃음으로 극복하려 했던 서민적 사고가 훨씬 역동적인 삶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나. 당신화간의 지역적 연계

한라산계 당신화 계보는 송당계 본풀이·예래계 본풀이·금악계 본풀이와 연관시켜서 연계성이 잘 제시되고 있다.¹²⁾ 송당본풀이와 한라산계 본풀이 관련 중 직접 연관이 되는 신은 송당 본향당신 아들 중에서 다섯째 아들인 ‘수산하로산’인데, 이 수산하로산은 한라산계 아홉 형제 중에서 첫째 아들이 되고 있다. 곧 송당계와 한라산계는 서로 유명 신당을 취합하

11) 손진태, 앞의 책, 270쪽.

12) 강정식(2002),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는 과정에서 당신들의 명칭이 넘나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라산계와 예래계와의 관계는 부너지간이 되어 여성신 계보를 형성한다. 아버지인 '하로하로산'과 '족다리 대서부인' 사이에 딸 일곱을 낳았다. 이 여신들은 안덕면 창천, 통천, 감산 등의 당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당의 분화는 이 지역 여성들의 혼인에 의한 전파와 마을 분리에 의한 신앙분리로 보고 있다.

서귀포의 신화는 주로 당본풀이에서 연유한 당 신화들이 주류를 이룬다. 당본풀이는 신의 계열을 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웃한 지역과 연계를 가지며 마을 설촌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예촌(하례리)과 효돈, 보목, 토평지역이 서로 동일계 신화로 관련되어 있으며 한라산신계의 신이고, 보목과 효돈은 동일 신으로 되어 있다. 곧 당본풀이는 좌정위치 뿐만 아니라 신의 특성, 위계 혹은 신의 식성마저도 설연하고 있다. 각 당의 좌정위치 및 제일(祭日)과 당 본풀이를 통하여 당의 특성과 신앙민의 인식을 살필 수 있다.

신화에 나타난 신들은 인간적인 속성을 지닌다. 구연되면서 변이되고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본풀이가 지역민의 공동체적인 인식을 형성하거나 관습화하기도 하는데 서귀당 본풀이인 경우는 서귀리와 동흥리간의 문화적인 문맥을 형성하여 두 지역민들의 감정마저도 관습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효돈 본향당인 '즈배낭알당'은 신하효리민을 신앙권으로 하는 본향당으로 쇠소깍에 위치해 있다. 쇠소깍 즈배낭(구살갓밤나무)아래에 좌정했다고 해서 '즈배낭알당'이라고도 한다. 당신은 두 신위로 남편신인 조노깃한집 '브르뭇도'와 여신이면서 남신의 첩인 '새금상땃님'이 좌정되어 있다.

이 신들은 생산, 물고, 호적, 유아를 관장하게 된다. 제일(祭日)은 1월 12일, 2월 12일, 11월 14일이다. 신화인 본풀이의 주인공은 한라영산에서 솟아난 '백관님'과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난 '도원수', 칠오름서 솟아난 '도병서' 삼위는 예촌본향신이고, 보목리 '조노기'본향은 한로영산 서남목계 백

룩담서 솟아난 ‘브르뭇도’이다.

브르뭇도 부인은 ‘신중부인’인데, 하루는 부인을 거느리고 백록담에서 차츰 내려오다가 ‘제환지’(서귀읍 상호리 지명)에 와서 보니 줍오름에 청기와와 흑기와로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신이 있어, “어떤 어른이 좌정했는가?” 하고 의문을 가졌다.

브르뭇도는 부인을 ‘토평’에 있는 허좌수 집에 가서 맡겨두고 혼자 청기와 집애가 수작을 하니 한 분은 할로영산 백관님이고, 한 분은 강남천자 도원수, 마지막 한 분은 줍오름 도병서였다. 세 분이 바둑과 장기를 두고 있어 자신을 소개하여 나이를 헤아리니 조노기 본향이 가장 위였다. 친목 화합으로 바둑 장기를 두었는데 예촌 본향이 이겼다. “내가 바둑이 졌으니 어딜로 가서 좌정하쿠가?” 예촌 본향당은 자신이 이겼으니 위로 가서 좌정하고 조노기는 보목리로 내려와 좌정하게 된다. 이때 마침 예촌 본향당의 ‘당하니’(매인심방)가 되어 대대손손 위하게 된다.

조노깃당 신이 신중부인이 있는 토평에 와서 보니 부인에게서 종경내(돼지를 불에 그을렸을 때 단백질이 탄 야릇한 냄새)가 나 부인에게 물었더니 돼지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내장을 먹었다고 대답했다. 본향신은 냄새 나고 더럽다고 해 자신과 별거를 선언하게 되어 신중부인은 토평에 좌정하게 된다. 생산, 물고, 호적, 육아에다 수렵(狩獵)을 관장하게 되고, 제일(祭日)은 6월 7일, 11월 7일로 일똥당계(칠일계) 신으로 좌정한다.

한편 부인과 헤어지게 된 남신은 ‘새금상똥님애기’의 첩을 얻었다. 남편과 같이 좌정, 신앙민들을 관장하는 이 여신은 억세고 질투가 심하여 단골들에게 많은 양의 재물을 요구하는 당신이 되었다.

그리고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영등신은 외방신으로 강남천자국이나 외눈배기 섬에서 온다고 알려지고 있다. 서귀포시 보목리에 있는 조노깃당의 신화에서도 외눈배기 섬의 전설이 공유되고 있다.

오랜 옛날에 이 지역 사람들은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했다. 마을에는 일곱 아들을 둔 형제가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외눈백이 땅 괴물들이 사는 섬에 표류 하게 되었다. 날이 저물어 인가를 발견한 후 들어

가서 늙은 노파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노파가 차려주는 저녁을 먹고 피곤하여 벽에 의지하여 잠을 붙이면서 여러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잠깐 눈을 붙인 새 있자 남자 주인이 들어왔다. 노파는 일곱 놈이 집에 들어와 가두어 두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형제들은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써 보았으나 열려지지 않았다. 형제는 상투에 꽃을 동곳(상투에 꽃는 비녀의 일종)을 가지고 벽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다. 곧 구멍을 통해 빠져 나올 수가 있었다. 그런데 한참을 도망가다 보니 큰 바위 위에 백발 노인이 큰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었다. 형제들을 그 노인에게 간청했다.

“우리들을 살려주소요.” 노인은 큰 바위를 굴려서 그들을 숨겨 주었다.

얼마 있노라니까 외눈박이가 개를 끌고 쫓아 왔다. “영감님! 이 곳을 지나간 일곱 놈을 못 보셨습니까?” “웬걸 저쪽으로 방금 지나 갔는 걸”. 영감님이 가리키는 곳으로 외눈박이가 돌아가버리자 백발노인은 이들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 배를 마련해주었다.

“배를 타고 가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말을 해서도 안돼네.” 형제들은 이 말을 명심하고 고향 보목리까지 오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큰 형이 “이제는 살았구나.”하고 한마디를 하자 다시 떠나온 섬으로 배가 바람타고 날아가 버렸다.

“왜 말을 허수룩게 들으시오.”하고 노인은 이들을 나무라며 가상히 여겨 직접 제주바다로 형제들을 데리고 왔다. 형제들은 보목리에서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고 번창하게 살면서 늘 그 노인의 고마움을 잊지 못했다. 그래서 절오름 아래 당집을 지어 노인을 모시기로 한 것이다.

그 이후는 보목리를 지켜주는 당신으로 조노깃당에 새롭게 모셔 마을 사람들에게 숭앙을 받아오면서 매년 정월 13일과 2월 12일, 동짓달 14일을 제일로 정하고 온 마을 사람들의 안녕과 번영을 빌었다.

Ⅵ. 개별 화자의 특성에 따른 변이

개별화자, 곧 유능한 창자에 의해 기존의 작품에 흥미를 더하면서 변이되는 예들은 민담과 같이 변이성이 높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역사와 인물, 풍수에 대한 소재는 주로 남성창자들의 전가물처럼 이용되었고 조상 숭배와 효를 강조하거나 무속신앙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표출된다.

또 여성들인 경우는 주로 민담을 구연하는데 원형을 그대로 구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을 창안해서 더욱 다양한 소재와 변이형태로 전승되는 예도 있다.¹³⁾

안덕면 덕수리 윤추월이 구연한 민담 속에는 화자에 의한 건강한 웃음과 해학이 잘 드러난다.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유형으로 죄 없는 세 동무의 범죄를 추궁하다가 자신의 여러 가지 약점과 치부를 내보이는 재판장을 통해서 서민들의 재치를 표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괴상한 세동무’, ‘피로 장가든 정승아들’, ‘신기한 호랑이 눈썹’, ‘악한 며느리’, ‘사람 잡아먹는 이야기’, ‘사람이 돼지로 환생한 이야기’ 등이 있다. 서민들의 지혜를 주제로 해 기존에 있던 이야기 속에 더욱 흥미를 가미해서 재미를 더한 것들로서 서민들 삶의 건강성이 배어난다.

‘괴상한 세 동무’는 지혜로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하고 재판장의 약점을 알고서 후한 대접을 받게 되었으며, ‘피로 장가든 정승아들’ 역시 지혜로 서 부잣집의 사랑하는 딸을 얻어 장가들었다는 이야기다.

‘신기한 호랑이 눈썹’은 보은담 계열로 볼 수 있으며 처자와 자식을 걱정하는 남편이 호랑이의 도움을 받고 잘 살았다고 전한다.

‘악한 며느리’는 독실한 불교 신자인 시어머니가 아기를 흔들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외쳤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 말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를 며느리에게 물었다.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며느리는 뒷집의 홀애비인 김서방을 의식해서 ‘뒷침이 김서방김서방’ 한다고

13) 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 『學術調查報告書』 제7집, 1982.

말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기를 흔들 때마다 ‘뒷칩이 김서방, 뒷칩 김서방’하고 노래했다. 아들은 늘 어머니가 김서방을 부르는 소리가 너무 안타까워하던 차에 뒷집의 김서방을 찾아가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를 말했으나 거절당했다.

그 이후도 어머니는 연자매 광돌에 앉아서 계속 외치다가 어느 날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하늘 옥황으로 올라가게 된다. 며느리도 어머니가 간 길을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길가에 나와서 계속 외쳐 대었는데, 날벼락이 쳐 며느리를 구렁이로 변신케 하고 지옥에 떨어뜨려 버렸다. 민담은 시어머니를 속이고 부모 공양을 잘 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벌을 내렸다는 것으로 효를 권하고 악을 징치하는 권선징악의 기본적인 사고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사람이 돼지로 환생한 이야기’에서는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저승에 갔다가 교훈을 얻어서 돌아온 이야기이다. 생명을 죽이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불교를 믿지 않은 사람이 저승에 가서 깨우침을 얻은 후에 불교를 믿고 도를 닦게 된다는 불교 포교적인 색채가 짙은 이야기다.

윤추월은 기억과 창조성과 함께 구연능력을 갖춘 화자로서 그녀에 의해 많은 이야기가 재생산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Ⅶ. 의도적인 개작과 변이

개작과 변이는 의도적인 목적 하에 새로운 형태를 만든 경우이다. 민속 축제 참여를 위해 자신들이 전통속에 내재화 된 것과는 다른 새로운 맛을 지닌 것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역별 구전영역의 새로운 창조와 함께 새로운 생성에 색다른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덕면 덕수리는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여 1980년에 ‘방앗돌 굴리는 노래’로 대통령상을 받았고, 1979년에는 ‘불무노래’로, 1981년에는 ‘집 줄 놓는 노래’로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2006년 제 47회 전국 민속 경연대회에 ‘굿바구리 물통 파는 놀이’를 가지고 참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곳 주민들은 이 지역의 민속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전승 보존과 함께 다시 연희화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자신들의 전통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에서 열리는 탐라문화제와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전국민속경연대회와 같은 민속축제는 특히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연희화하여 전승하는데 가장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축제들은 민요의 온전한 전승을 요구받으면서도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다른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고 향유하여 즐기면서 변이가 일어난다. 그 결과 독자적인 민속 문화적 특성 외에도 같이 민속 연희를 자주 만들어서 공연했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한 예를들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민속 연희를 재구성을 위해 기존에 있는 민요들을 이용하여 연희화, 놀이화하는 것으로서 실제 2006년 제 47회 전국민속 경연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기존에 전승되던 노동요들을 ‘물통파는 놀이’ 속에 포함시켜 놀이요로 만든 경우이다. 안덕면 덕수리 마을 안에는 물통이 6,7곳이 있으며 곳바구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그 모습이 마치 꽃바구니처럼 생겼다고 해서 ‘곳바구리’라고 불렀다. 물통을 파서 물을 모으는 것은 곧 물을 구하여 저장하는 일이므로 지역민들이 해야 되는 가장 필수적이며 절실한 일이었다.

지역주민들은 서로가 땅을 파서 힘을 합쳐 물통을 만들고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다시 흙과 돌을 이용하여 축조하고 소를 이용해서 흙을 이긴 후에 골고루 바르고 바닥은 달구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다진다.

여기에서 부르는 노래로는 따비를 이용하여 땅을 파는 <따비질소리>, 파낸 삼태기나 가래로 흙을 꺼내고 돌로 독을 축조하는 <술기소리>, 그리고 흙을 이기고 바르며 밑바닥을 다지는 <원달구소리>, 물통이 완성되어 그 기쁨을 노래한 <서우젓소리> 등으로 구성된다.

원시공동체가 물을 얻기 위한 염원을 의례에 담고, 서로 힘을 합쳐서 땅을 파고 물통을 만드는 노동의 신명이 연희와 축제를 만들었던 셈이다. 그러나 사실 내용에서는 제주 노동요의 고정구들을 이용하여 정연한 사설

을 만들긴 했으나, 다소 즉흥적이고 현장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¹⁴⁾

VIII. 결 어

구비문학에서 일차적 구성 요소인 언어의 중요성은 그 비중이 상당히 크다. 곧 제주사람들에 의해 전해지는 구비문학은 제주어의 저장고이며 제주어가 올곧이 살아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자로 정착되는 구비 전승은 이미 대가 끊긴 지 오래되어 제주어의 전승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실질적인 구비 전승은 현장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연된 혹은 인위적인 상황에서 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구연층이 제한되는 점에 착안하여 보존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아있는 구연 계층 및 구연자의 구비작품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하고 기존에 조사된 구비 자료들을 정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브와 같은 기관 설립도 필요하다. 이러한 구비전승·구비문학·구비언어 자료들의 정리와 보존 전승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제주어 언어 체계 존속은 불가능하다.

기존에 수집된 구비문학 자료에는 제주사람들의 언어로 표현된 세계관과 인식이 잘 반영되고 있는데, 특히 구비문학의 전승변이를 살펴보면 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시적 변이와 함께 역사를 반영하며 공시성에 따른 장르의 내부적 변이, 개별 화자에 의한 변이, 목적성을 띤 의도적인 변이도 나타난다.

우선 지역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동 유형 전설의 전도적인 분포와 함께 동 유형의 풍수 전설 등이 구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근 지

14) 국립민속박물관편(2007), 『덕수리민속지』, 287쪽.

역의 소재를 차용하기도 하며, '삼별초'전설이나 해녀항일에 대한 사실담도 구전되고 있다. 설문대 이야기가 신화·전설·민담 형식으로 구전되었다는 것은 민중들에게 선호도가 높고 향유층의 광포성을 뜻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장르 내부에서 일어난 변이 현상 추정이 가능하고 또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당신화간에서는 지역적인 연계가 뚜렷이 나타난다. 또한 구연능력이 뛰어난 화자에 의한 변이는 언어와 문학성을 풍부케 하며 그 흥미를 더하는 편인데 목적성을 띤 의도적인 개작은 현장감과 언어에 내포된 연상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참 고 문 헌

- 강정식(2002),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강진옥(1993), 「마고할미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 국립민속박물관(2007), 『덕수리민속지』.
- 金榮振(1985), 『韓國自然信仰研究』,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수자(1998), 『설화 화자 연구』, 박이정.
- 이영권(2005),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1982), 「學術調査報告書」, 제7집.
- 제주도(1995), 『제주의 민속 III』.
- 조동일(1980),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조동일(1977),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Special Characteristic Changes in the Oral Transmission of Jeju Culture

Choa, Hye-Kyung*

ABSTRACT

The importance of language which is the first element in the oral transmission culture cannot be emphasized enough. The oral culture that is being transmitted by the Jeju people literally means the correct delivery and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Jeju language.

However, the authentic oral transmission is almost always not being carried out on site and is being carried out only in reenactments of an artificially made environment. Facing such challenges, lively discussions are being construed on the scale of preservation in terms of gradual limitation in people who can actually carry out the transmission. A thorough investigation of able people and stories that remain need to be executed and an establishment of an archive for arranging and preserving the already existing orally transmitted culture that have been found also needs to be built.

Amongst the already collected data regarding the orally transmitted literature, we can have a glimpse into the world view and awareness expressed through the Jeju people's language. If we were to take a closer look especially into the changes in the methods of transmission,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se methods are salient. These changes include synchronic changes that reflect locality, internal changes in genre

* Jeju Haenyeo Museum Researcher.

as well as intentional change with certain purposes or according to the narrator.

The commonality in the transmission process by region that appears foremost amongst these literature are an island wide distribution of similar type legends along with legends that clash against perspectives about the Confucius ideology and feng shui legends that deal with limitations of the Jeju people which have been orally passed down all over Jeju.

In addition, according to regions, the stories may become a legend to be passed down reflecting a historical incident, borrowing topics from a nearby village, or specific people such as Kim Tongjung or the anti Japanese movement by the women sea divers.

The fact that the stories such as that of Seolmundae Halmang being transmitted as myths, legends and folktales means that this kind of stories are highly preferred by the general public and also signifies ubiquity of location shared by the people who enjoy these stories.

Other than this, there are cases where there is a clear delineation of regional connection and possibility of picking out the changes that occurred within the genre.

The changes that have occurred due to a talented narrator adds on to the language, enrichment of the literature and interest level. However, concern has also been expressed in that adaptation with a certain purpose may weaken the associative ability contained within the language and location.

Keyword : Oral Transmission of Culture, Changes in Transmission,
Myths, Narrator, Seolmundae Halmang

논문투고일 2009. 12. 31

심사완료일 2010. 02. 05

게재확정일 2010. 02. 15